2025년 고3 7월 학평

2025년 시행 고3 7월 학평 국어 문학 | 설홍전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홍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 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니, 돌쇠 눈을 들어 보니 쇠금용두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 있거늘 돌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이놈, 너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할 바에는 내 칼을 받으라."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 용두를 치거늘, 설홍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A]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에 싸인 아이라. 산을 뽑는 기개를 지닌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나를 당하겠느냐. 부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 돌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두 번이나 막았으니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고,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

[B]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그러나 설홍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육갑육경으로 오행구궁팔괘를 이십 사방에 붙여 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육십사괘 중 축귀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는지라. 귀신 병졸들이 견디지 못하여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나더라.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 설홍은 광지법을 베풀어 길을 막으니 돌쇠 크게 놀라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생각다 못하여 엎드려 빌며 말하기를

"소인의 죄가 많사오나 공자의 넓으신 덕으로 이 놈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홍과 소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후 가달국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홍이 구한다. 이에 설홍은 대원수에 봉해져 가달국에 맞선다.

육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를 보시고 달왕을 유인하였다 말하니 원수 들으시고 즉시 병기를 갖추어 고대하더라. 이때 달왕이 황양동으로 들어가니 과연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려 와 보니 골 안에 가득하거늘 마음이 기뻐 왈

"아까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

하며, 말이 끝나자마자 방포일성 소리 더욱 커지며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하더라. 사방팔방으로 둘러 있고 산 위로 복병이 선득선득 내달아 분별이 없는지라. 사면으로 가달을 첩첩이 둘러싸고 팔방으로 둘렀는데 황진 설홍이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달왕이 그제야 황동 내촌 백성에게 속은 줄을 알고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설홍과 싸울 때 반궁이 분분하여 뒤쫓아 분별하지를 못하겠더라.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 왕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몸을 바람에 붙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며 서로 싸울 때 사석이 날려 피차를 분별치 못하더라. 다시 오십여 합에 원수의 와룡검이 번득하더니 달왕이 땅에 엎드리거늘 선봉장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 원수 설홍은 홍안에 봉목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왈

"이놈 달왕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달왕이 이런 거동을 보고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라."

하니, 원수 분기하여 크게 소리 질러 왈

"네 죄상은 만만가지라 청춘을 아끼거든 항복하라."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달왕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달왕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달왕이 모습을 바꾸어 흰 꿩이 되어 생왕방으로 달아나거늘 가다가 그물에 걸려 떨어졌다. 원수 군사를 거느려 쫓아가며 그물을 걷어 보니 흰 꿩은 간데없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가** 또 그물 사이 홧득 어리거늘 원수와 육목철이 가면서 이르기를

"달왕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네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는 **백호**가 내달아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자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철을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무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없이 장난하며 절벽 위로 달아났다. 원수 대호의 하는 거동을 보고 괴이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 설홍이 쫓아가며 와룡검을 들어 달왕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라.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달왕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 하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학평 변형 문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와 과장 표현을 활용하여 전투 상황의 격렬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되 어떤 가치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다.
③ 변신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 구성하고 있다.
④ 직접 화법 중심의 묘사를 통해 서술자의 개입 없이 사건을 전개한다.
⑤ 반복된 전투 장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홍'은 돌쇠가 승상에게 한 일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② '돌쇠'는 설홍에게 대적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축지법으로 도망치려 한다.
③ '달왕'은 흰 꿩, 보라매 등으로 변신하여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④ '소저'는 설홍과 함께 가달국과의 전투를 지휘하며 대결에 참여한다.
⑤ '육목철'은 달왕을 결박한 뒤 좌우 장졸과 함께 달왕을 포위한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학평 변형 문제

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상대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다.
③ [A]는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④ [B]는 상대방의 지위를 근거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설홍전」은 주체가 둔갑에 의해 몸을 감추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 모티프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는데, 변신과 도술이 결합하는 부분에서는 작품의 환상성이 부각된다. 변신은 주인공과 적대자 모두에게서 보이는데, 다른 인물의 원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에서 비롯된 개인적 차원의 갈등 그리고 충을 실현하려는 주인공과 이를 방해하는 인물 간의 사회적 차원의 갈등에서 나타난다. 이때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에 맞서 적대자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① 설홍이 '지성을 다하여' 소저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은, 충을 실현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② 설홍이 '둔갑'으로 '몸을 감추'며 '오방신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개인적 차원의 갈등 속에서 변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③ 달왕이 '보라매'로 변하여 '성문 밖으로 날아가'는 데에서, 적대자의 변신이 서사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달왕이 '보라매'에서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는 '백호'로 변하는 데에서, 적대자의 변신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군.
⑤ 달왕이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는 데에서, 환상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5. 설홍과 달왕의 전투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달왕은 황양동 백성을 믿고 방심하다 설홍의 복병에 당한다.
② 설홍은 와룡검으로 달왕의 투구를 깨뜨리며 기선을 제압한다.
③ 전투 장면은 과장된 표현과 비유로 긴박감을 높인다.
④ 달왕은 전투 중 여러 차례의 변신을 통해 도주를 시도한다.
⑤ 설홍은 달왕과의 전투에서 항상 방어적 태도를 유지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돌쇠가 소저를 지키기 위해 부른 존재이다.
② 종이를 이용해 소환되며 군법을 언급하며 협박한다.
③ 설홍의 도술에 의해 방향을 잃고 패배한다.
④ 설홍을 도와 소저를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
⑤ 과장된 표현을 통해 그 등장이 묘사된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홍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 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니, 돌쇠 눈을 들어 보니 쇠금용두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 있거늘 돌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이놈, 너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할 바에는 내 칼을 받으라."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 용두를 치거늘, 설홍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에 싸인 아이라. 산을 뽑는 기개를 지닌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나를 당하겠느냐. 부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 돌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두 번이나 막았으니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고,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그러나 설홍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육갑육경으로 오행구궁팔괘를 이십 사방에 붙여 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육십사괘 중 축귀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는지라. 귀신 병졸들이 견디지 못하여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나더라.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 설홍은 광지법을 베풀어 길을 막으니 돌쇠 크게 놀라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생각다 못하여 엎드려 빌며 말하기를

"소인의 죄가 많사오나 공자의 넓으신 덕으로 이놈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홍과 소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후 가달국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홍이 구한다. 이에 설홍은 대원수에 봉해져 가달국에 맞선다.

육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를 보시고 달왕을 유인하였다 말하니 원수 들으시고 즉시 병기를 갖추어 고대하더라. 이때 달왕이 황양동으로 들어가니 과연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려 와 보니 골 안에 가득하거늘 마음이 기뻐 왈

"아까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

하며, 말이 끝나자마자 방포일성 소리 더욱 커지며 ㉡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하더라. 사방팔방으로 둘러 있고 산 위로 복병이 선득선득 내달아 분별이 없는지라. 사면으로 가달을 첩첩이 둘러싸고 팔방으로 둘렀는데 황진 설홍이 ㉢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달왕이 그제야 황동 내촌 백성에게 속은 줄을 알고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설홍과 싸울 때 반궁이 분분하여 뒤쫓아 분별하지를 못하겠더라.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 왕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몸을 바람에 붙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며 서로 싸울 때 사석이 날려 피차를 분별치 못하더라. 다시 오십여 합에 원수의 와룡검이 번득하더니 달왕이 땅에 엎드리거늘 선봉장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 원수 설홍은 홍안에 봉목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왈

"이놈 달왕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달왕이 이런 거동을 보고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라."

하니, 원수 분기하여 크게 소리 질러 왈

"네 죄상은 만만가지라 청춘을 아끼거든 항복하라."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달왕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달왕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달왕이 모습을 바꾸어 흰 꿩이 되어 생왕방으로 달아나거늘 가다가 그물에 걸려 떨어졌다. 원수 군사를 거느려 쫓아가며 그물을 걷어 보니 ㉣ 흰 꿩은 간데없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가 또 그물 사이 횃득 어리거늘 원수와 육목철이 가면서 이르기를

"달왕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네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는 백호가 내달아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 산악이 무너지며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자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철을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무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없이 장난하며 절벽 위로 달아났다. 원수 대호의 하는 거동을 보고 괴이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 설홍이 쫓아가며 와룡검을 들어 달왕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라.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달왕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 하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7.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 전후의 인물 감정까지 묘사하고 있다.
② 인물의 직접 화법만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③ 동일한 사건을 시점 변화로 반복 묘사하는 복합 서술 구조를 지닌다.
④ 회상의 형태로 설홍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서술된다.
⑤ 서술자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물의 행동만 묘사한다.

8. 돌쇠를 대하는 설홍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를 무시하는 설의적 어법을 사용한다.
② 상대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낮추어 위계 관계를 강조한다.
③ 감정적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조롱한다.
④ 자신의 우위를 전제하고 청자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⑤ 상대의 실력을 확인한 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9.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설홍전」은 비유적 표현, 과장적 표현, 설의적 표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 모습 그리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러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사의 긴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설홍은 돌쇠의 칼을 막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며 그의 실력을 조롱한다.
② 돌쇠는 설홍이 도술로 오방신장을 무력화시키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려 한다.
③ 달왕은 백성들을 속여 설홍의 군사를 황양동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다.
④ 설홍은 와룡검을 사용해 달왕의 투구를 깨뜨린다.
⑤ 달왕은 변신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설홍에게 제압당한다.

11. <보기>는 작품의 갈등 양상에 대한 정리이다. 이에 부합하지 <u>않는</u> 설명은?

<보기>

작품은 선악 구도가 분명한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설홍은 정의를 대변하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단하고, 국가적 위기에서도 영웅적 면모를 발휘한다. 갈등은 개인적 복수에서 출발해 사회적 정의 실현으로 확장된다.

① 설홍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복수하며 서사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② 돌쇠와의 갈등은 정의 구현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정당화된다.
③ 달왕과의 싸움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충돌이다.
④ 설홍의 행보는 악인을 응징하고 황제를 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⑤ 갈등은 설홍의 승리를 통해 해결되며 서사는 마무리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홍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 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니, 돌쇠 눈을 들어 보니 쇠금용두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 있거늘 돌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이놈, ㉠ <u>너</u>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할 바에는 내 칼을 받으라."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 용두를 치거늘, 설홍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에 싸인 아이라. 산을 뽑는 기개를 지닌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 <u>나</u>를 당하겠느냐. 부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 돌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두 번이나 막았으니 ㉢ <u>이놈</u>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고,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

"집안에 ㉣ <u>도적</u>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그러나 설홍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육갑육경으로 오행구궁팔괘를 이십 사방에 붙여 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육십사괘 중 축귀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는지라. 귀신 병졸들이 견디지 못하여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나더라. 돌쇠 이러한 거동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 설홍은 광지법을 베풀어 길을 막으니 돌쇠 크게 놀라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생각다 못하여 엎드려 빌며 말하기를

"소인의 죄가 많사오나 공자의 넓으신 덕으로 ㉤ 이놈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홍과 소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후 가달국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홍이 구한다. 이에 설홍은 대원수에 봉해져 가달국에 맞선다.

육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를 보시고 달왕을 유인하였다 말하니 원수 들으시고 즉시 병기를 갖추어 고대하더라. 이때 달왕이 황양동으로 들어가니 과연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려 와 보니 골 안에 가득하거늘 마음이 기뻐 왈

"아까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

하며, 말이 끝나자마자 방포일성 소리 더욱 커지며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하더라. 사방팔방으로 둘러 있고 산 위로 복병이 선득선득 내달아 분별이 없는지라. 사면으로 가달을 첩첩이 둘러싸고 팔방으로 둘렀는데 황진 설홍이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달왕이 그제야 황동 내촌 백성에게 속은 줄을 알고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설홍과 싸울 때 반궁이 분분하여 뒤쫓아 분별하지를 못하겠더라.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 왕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몸을 바람에 붙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며 서로 싸울 때 사석이 날려 피차를 분별치 못하더라. 다시 오십여 합에 원수의 와룡검이 번득하더니 달왕이 땅에 엎드리거늘 선봉장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 원수 설홍은 홍안에 봉목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왈

"이놈 달왕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달왕이 이런 거동을 보고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라."

하니, 원수 분기하여 크게 소리 질러 왈

"네 죄상은 만만가지라 청춘을 아끼거든 항복하라."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달왕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달왕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달왕이 모습을 바꾸어 흰 꿩이 되어 생왕방으로 달아나거늘 가다가 그물에 걸려 떨어졌다. 원수 군사를 거느려 쫓아가며 그물을 걷어 보니 흰 꿩은 간데없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가 또 그물 사이 횃득 어리거늘 원수와 육목철이 가면서 이르기를

"달왕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네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는 백호가 내달아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자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철을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무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없이 장난하며 절벽 위로 달아났다. 원수 대호의 하는 거동을 보고 괴이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 설홍이 쫓아가며 와룡검을 들어 달왕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라.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달왕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 하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물 간 갈등과 극복을 중심으로 영웅 서사를 구축한다.
②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며 개입하기도 한다.
③ 인물의 심리를 직접 진술하기도 하고, 독백을 통해 드러내기도 한다.
④ 작중 인물의 비범함은 서술자의 설명과 상황 묘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산악이 무너지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등 과장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투의 격렬함과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어찌 용납이 되리오',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에서 서술자의 가치 판단이 드러난다.

③ 변신은 달왕의 도주를 위한 장치로 활용된 것이지, 인물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재와 교차하는 구성이 아니다.

④ 직접 화법뿐만 아니라 간접 진술과 서술자의 논평도 나타난다.

⑤ 전투 장면은 성격 변화보다 인물의 능력 강조와 갈등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

2. 정답 ④

소저는 이야기 전반에서 구출의 대상이며, 전투 장면에서는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설홍과 함께 전투를 지휘하거나 참여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너는 승상 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달왕은 흰 꿩 → 보라매 → 백호로 변신하며 설홍에게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

⑤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정답 ①

[A]에서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는 설의적 표현으로 상대의 죄가 중대함을 강조하며, 윤리적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② 고사 인용은 [B]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무력함을 호소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표현은 없다.

④ [B]는 감정적 대립과 무력 사용을 강조할 뿐, 상대의 지위에 근거한 복종 요구는 아니다.

⑤ 두 인물 모두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4. 정답 ①

설홍이 소저의 아버지(승상)에게 기도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설홍은 승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돌쇠를 처단하려고 하며, 지성을 다해 기도하는 장면은 돌쇠가 오방신장을 소환하기 위해 수행한 행동이다. 해당 장면은 설홍의 충 실현과도 무관하다.

② 돌쇠와의 대결은 개인적 갈등으로 이 대결 속에서 설홍은 몸을 감추고 둔갑하며 변신 능력을 발휘한다.

③ 달왕의 변신은 설홍과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서사 전개상 기능이 분명하다.

④ 적대자 달왕이 흰 꿩에서 보라매로, 보라매에서 백호로 변신하는 것은 주인공 설홍의 영웅적 능력에 맞서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⑤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는' 표현은 도술과 변신이 결합된 환상적 서술이다.

5. 정답 ⑤

설홍은 와룡검을 휘둘러 달왕의 투구를 깨뜨리고, 도주하는 달왕을 추격하며 공격을 이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는 인물이다. 따라서 항상 방어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①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라는 진술에서 보이듯, 달왕은 백성에게 속아 방심한 상태로 복병에 당하고 있다.

②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이라는 대목에서 설홍이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난다.

③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등에서 알 수 있듯, 과장과 비유를 통해 전투의 긴박감이 강조되고 있어 옳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④ 달왕은 흰 꿩 → 보라매 → 백호로 변신하며 도망치고 있다.

6. 정답 ④
오방신장은 설홍이 아닌 돌쇠를 도우려 등장했으나 패배하였다.
①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정답 ①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돌쇠의 독백 등)과 감정, 사건을 모두 전지적으로 설명하는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② 직접 화법만이 아니라 간접 진술도 많다.
③ 동일 사건의 반복 서술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회상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어찌 용납이 되리오',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8. 정답 ③
설홍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도술로 제압하며, 명확한 위계와 전략적 언행을 유지한다. 상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감정적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조롱한다는 것은 설홍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늘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는 설의적 표현과 고사 인용을 통해 상대를 낮추고 무시하고 있다.
② '강보에 싸인 아이'라는 비유는 돌쇠의 능력을 하찮게 만들며 설홍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설홍은 자신의 우위를 기정사실화한 뒤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며 청자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가 무슨 재주로 나를 당하겠느냐.' 등에서 설홍의 여유로운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9. 정답 ④
보라매로의 변신은 단순한 상징적 서술로, 과장된 묘사와는 구별된다.
①, ②, ③, ⑤ 모두 전투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과장적 묘사이다.

10. 정답 ③
달왕은 황양동 백성에게 속아 방심하다 설홍의 복병에 당한 것이며, 달왕이 백성을 속여 유인한 것이 아니다.
① 설홍은 '강보에 싸인 아이'라며 돌쇠를 조롱하고, 그의 칼을 막아 던질 정도로 비범한 모습을 보인다.
② 돌쇠는 오방신장이 패배하자 축지법으로 도망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달왕은 흰 꿩, 보라매 등으로 변신하며 도망치다 결국 설홍의 검에 맞아 죽는다.

11. 정답 ③
달왕과의 전쟁은 사사로운 충돌이 아니라, 황제를 구하기 위한 국가적 정의 실현의 연장선이다.
① 승상을 해친 돌쇠를 처단하려는 것이 서사의 출발이므로 옳다.
② 설홍은 승상의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므로 옳다.
④ 황제의 위기 상황에서 활약하므로 영웅적 역할을 수행한다.
⑤ 달왕의 죽음과 승전고는 갈등의 해소로 이어진다.

12. 정답 ⑤
이 작품은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은 영웅적 일대기의 전형적 구조인 '갈등–극복'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② '어찌 용납이 되리오',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서술자가 직접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감정을 드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러내는 개입이 나타난다.
③ 돌쇠가 설홍의 능력을 보고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는 내면 독백을 하는 등 인물의 심리를 직접 진술하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④ 설홍의 도술, 무공, 언변은 서술자의 설명과 상황 묘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13. 정답 ④
달왕은 장졸의 도움 없이 혼자 도술과 변신을 이용해 도망치려 하나 결국 설홍에게 제압당한다. 장졸이 도주를 도운 내용은 없다.
① 설홍은 '육갑육경' '오행구궁팔괘' 등을 활용해 오방신장을 무력화한다.
② 돌쇠는 오색 종이로 오방신장을 불러 소저를 지키려 하나 설홍에게 패한다.
③ 설홍은 가달국의 위협으로부터 황제를 구한 뒤 대원수로 임명된다.
⑤ 설홍은 달왕의 머리를 베어 황제에게 바치고 승전고를 울린다.

14. 정답 ③
설홍은 '네 변신하는 법을 내가 먼저 알거니와'라는 말로 달왕의 변신을 예측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설홍이 매번 속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달왕은 흰 꿩, 보라매 등으로 변신하며 설홍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
② 달왕은 변신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죽는다.
④ 추격자 설홍은 결국 달왕의 변신을 모두 간파하고 제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홍과 달왕의 능력 차이가 드러난다.
⑤ 변신이 반복되면서 서사는 단순한 일격 결투가 아닌 다층적 추격 구조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달왕의 변신은 서사적 긴장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15. 정답 ⑤
㉠, ㉡, ㉢, ㉣은 모두 설홍을 가리키고, ㉤은 돌쇠를 가리킨다.

16. 정답 ②
시비 운섬이 홍을 살리기 위해 계책을 낸 인물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며, 독약을 구해오기 때문에 홍의 조력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설홍을 산중에 버린 지 여러 해라.'를 통해 진 숙인은 어린 홍을 산에 버린 악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승상은 곰의 형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홍을 보고 홍을 구출하므로 조력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곰이 된 설홍은 욕심 많은 명선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 사방으로 끌려다니며 강제로 뭇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를 통해 명선은 곰의 형상으로 있는 주인공에게 강제로 재주를 부리게 하는 악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⑤ 꿈에서 만난 노승은 약을 통해 주인공을 곰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므로 조력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7. 정답 ①
[A]는 홍이 곰이 된 후 고난의 시간을 요약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B] 또한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악인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홍의 삶을 요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A]와 [B]는 둘 다 동정심에 호소하며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는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B]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지 않다.
⑤ [A]에는 절박함을 가장하는 심리가 드러나지 않으며, [B]에도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

18. 정답 ⑤
'선과(仙果)'를 통해 천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홍이 곰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천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
① 홍은 어릴 때 산에 버려졌으며, 버려진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점과 '선과(仙果)만 먹은 속'을 통해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② 홍이 곰이 되어 고통의 시간을 겪는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홍에게는 초현실적 능력이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윗글을 이해하면 홍이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